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경선 후보 인터뷰

“대선 패배 후 치열한 반성의 시간... 지방선거 승리로 진정한 책임질 것”

국민의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는 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존립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정치 지형 변화의 중요 변수로 꼽히고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호남 당원들은 국민의당 전체 당원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당권의 향배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광주일보는 국민의당 당권 주자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당권 도전 배경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 비전 등을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첫 번째 인터뷰 주자는 안철수 후보로, 15일 마포에 위치한 정책 네트워크 '내일'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혁신 공천·과감한 인재 영입 전략

당내 갈등 좁히려 매일 한 명씩 접촉

바른정당과 통합 없어... 입법 연대 가능

좋은 정책 먼저 내는 '강한 야당' 돼야

'탈 호남' 당 분열시키는 모순된 발상

으로 생각한다. 정치개혁, 인재영입, 선거제도 개편 및 개헌 등 3대 과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사당화 논란도 일 수 있다. ▲당원이 선택한 결과를 사당화로 볼 수 없다. 대표가 된다면 소통의 리더십을 세우겠다. 김동철 원내대표 등 원내는 물론 호남 중진들의 지혜를 모아 당의 역량을 결집시키겠다. 또, 손학규 고문 등 당의 경륜 있는 선배들을 모시고 함께 승리하는 길을 만들어 나가

겠다. -사람 모으는데는 별 재주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정당을 만들 정도로 사람을 모았지 않은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가능성은 ▲아직 진용도 갖춰지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 힘들다. 당의 진용이 갖춰지고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면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이 있다면. ▲당의 혁신을 통해 선거 승리를 이끌 복안은 준비돼 있다. 아직 공개하진 이르다. 지난 총선에서의 나타났던 문제점 등을 보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출마 여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용이 갖춰지고 인재 영입이 마무리된 이후 당에 보탬이 된다면 역할을 할 것이다. -탈 호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어 자체가 완전히 고약하다. 당을 쪼개고 분열시키는 용어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다. 발상 자체가 모순이고 있을 수 없다. 탈 호남을 통한 전국정당이라고 하는데 호남 없이 전국정당은 가능하지 않다. -지난 대선 패배 요인을 어떻게 보나. ▲무슨 말을 하겠는가. 모두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 뼈아픈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혁신은 결국 사람이다. 혁신 공천에 대한 입장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발표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성도 높이는 것이 혁신 공천이다. 여기에 과감한 인재 영입도 필요하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총선 승리 전략은 벤치마킹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한다면. ▲취임 100일 정도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국회화가 시작되면 국민의당도 달라질 것이다. 강한 야당이 되어야 한다. 생각과 다르면 강하게 어필하고 좋은 혁신 정책들을 먼저 제의하고 관철시킬 것이다. -호남 지역에 드릴 메시지가 있다면. ▲호남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지켜가겠다. 다당제는 경쟁이며 정치 혁신으로 이어진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또 호남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당제는 지켜져야 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호남 민심이 저와 국민의당에 주신 마음을 생각하면 늘 죄송스럽고 송구하다. 혁신과 헌신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일구어내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 /대담=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kwangju.co.kr /정리=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72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 다채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광주와 전남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가 열렸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윤장현 시장과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각급 기관 단체장,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대여고와 광복회원 정순빈(92)·김정환(77)씨 등이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광역시 표창을 받았다. 윤 시장은 경축사를 통해 “광복 72년을 맞아 애국지사들이 꿈꾸었던 세상,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이 실현됐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면서 “광주는 근로정신대 등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피해 어르신들의 고통과 상처를 시민 모두가 함께 끌어안으며,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경축식에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각에서 열린 타종식에는 윤 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등 16명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33번 타종했다. 전남도는 이날 도청 김대중중앙에서 애국지사 유족 위문, 축하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이 결집된 경축 행사를 열었다.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과 각계 각층 900여명이 참석한 이 경축행사에서는 전남도립국악단이 '생명의 땅, 한희의 울림'을 주제로 장고와 관현악 연주도 선보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전기차 277대 추가 선착순 보급

광주시는 15일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100대(민간 95대, 공공 5대)를 보급한 데 이어 2차로 277대를 추가 보급한다. 2차 보급은 민간 206대, 공공 71대이며 16일 모집공고를 통해 민간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지역 거주자 중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 단체, 일반 시민 등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 대상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RAY)와 쏘울(SOUL), 닛산 리프(LEAF), 르노삼성 SM3, 현대 아이오닉, BMW i3, 한국GM 볼트(BOLT) EV 6개사 7종이다. 한편 광주시가 올해 1월 실시한 1차 대상자 공모는 예상보다 시민들의 수요와 관심이 높아 신청 접수 3주 만에 100대가 모두 소진됐다.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16일부터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본인이나 선택한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만 충전기 70여대를 구축중이며, 하반기에 200대를 확대 보급하여 충전인프라도 늘릴 예정이다. 민간용 충전인프라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 국환경공단에서 신청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설치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를”

연론 3단체 의견서 전달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15일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공동으로 작성해 국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연론 3단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추진 내용이 있다”며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의 구독료가 소득공제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역 특성 맞는 긴급재난문자

광주시·전남도 직접 보낸다

국지성 폭우·산불·폭염 등 긴급재난문자(CBS·Cell Broadcasting Service)를 광주시나 전남도가 직접 송출한다. 전남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 문자방송 송출 승인권한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이관받아 17개 광역지자체가 직접 재난 문자 발송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시군별 특성에 맞는 문자 송출을 위한 조치다. 국가비상사태,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 민방공 상황정보 등은 여전히 행안부가 직접 상황을 통제하고 재난문자를 송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